

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, 한국 연례협의 실시

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*(Moody's)는 8.6일(수)~8일(금)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한다.

* 무디스 연례협의단 : 아누슈카 샤(Anushka Shah)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

※ 한국 국가신용등급(전망) : [Moody's] Aa2(안정적) [S&P] AA(안정적) [Fitch] AA-(안정적)

이 기간 동안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기재부·행안부·산업부·통일부·금융위 등 정부부처 외에도 한국은행, 금감원을 비롯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(KIPF)·국회예산정책처(NABO)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경제상황·전망, 성장 잠재력 제고방안, 재정운용방향, 통상 등 대외경제 현안, 금융 상황·제도 등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.

무디스는 경제상황 진단 등을 위해 기재부 등 주요 기관과 연 1회 연례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, 이를 바탕으로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다. 아울러, 무디스는 한국을 포함하여 신용등급 전망이 '안정적'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상 격년*으로 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, 그간 전례에 따른 경우,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평가는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.

* 최근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(Credit Rating Action) 발표 시기

: '24.5월 / '22.4월 / '20.5월 / '18.6월 / '15.12월 등

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무디스의 대면 면담 추진 등 금번 연례협의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	책임자	과 장 김희재 (044-215-4710)
		담당자	사무관 류성열 (sung127127@korea.kr) 주무관 김태영 (kimtaeyoung@korea.kr)